

나이 문턱 없는 온라인서 마켓 사장님 됐습니다



은행을 다니다 퇴직한 후 '온라인 상점' 사장님이 된 김이수 씨.

30여년 은행 재직 후 지점장으로 퇴직 재취업·투자 도전했다 번번이 실패

고용부 '국민내일배움카드' 직업 훈련 수강 인터넷 상점 운영 등 셀러 필수 자질 배워

1년만에 하루 매출 최대 100만원 거두기도 자신감에 의지 충만...美 플랫폼 진출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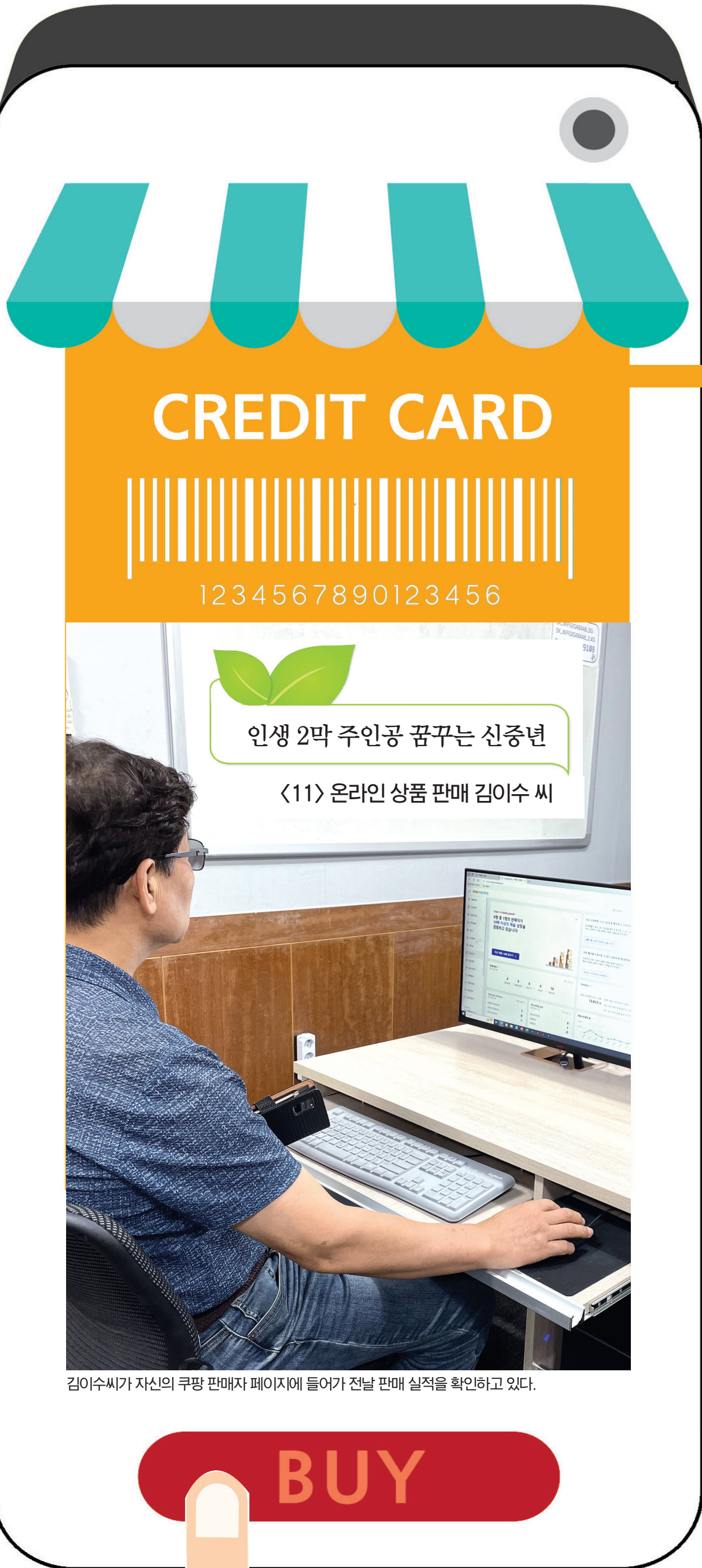
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 전날 판매량과 고객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루틴이 됐다고 말한다. 주문이 들어오면 신나서 가족들에게 "오늘 20만원 벌었으니 저녁은 내가 살게 되니" 이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아니?"하고 질문할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.

그는 "퇴직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, 힘든 일이 생겨도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사라지게 되더라.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소중한거"라고 말했다.

그는 "우리지역 상품을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싶다"고 말했다. 지역농협에서 일하면서 특히 전남 지역 농수산물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받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이다.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·전남 지역을 위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새로운 꿈이다.

그는 "퇴직 후 꿈을 좇는 사람들도 있지만, 나는 돈을 버는 게 중요했다. 퇴직 후에도 남은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"이라며 "1인 온라인 창업을 한 후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는 게 '뭉트지 할 수 있겠다'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.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전을 거듭해 주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"고 말했다.

/장혜원 기자 hey1@kwangju.co.kr



CREDIT CAR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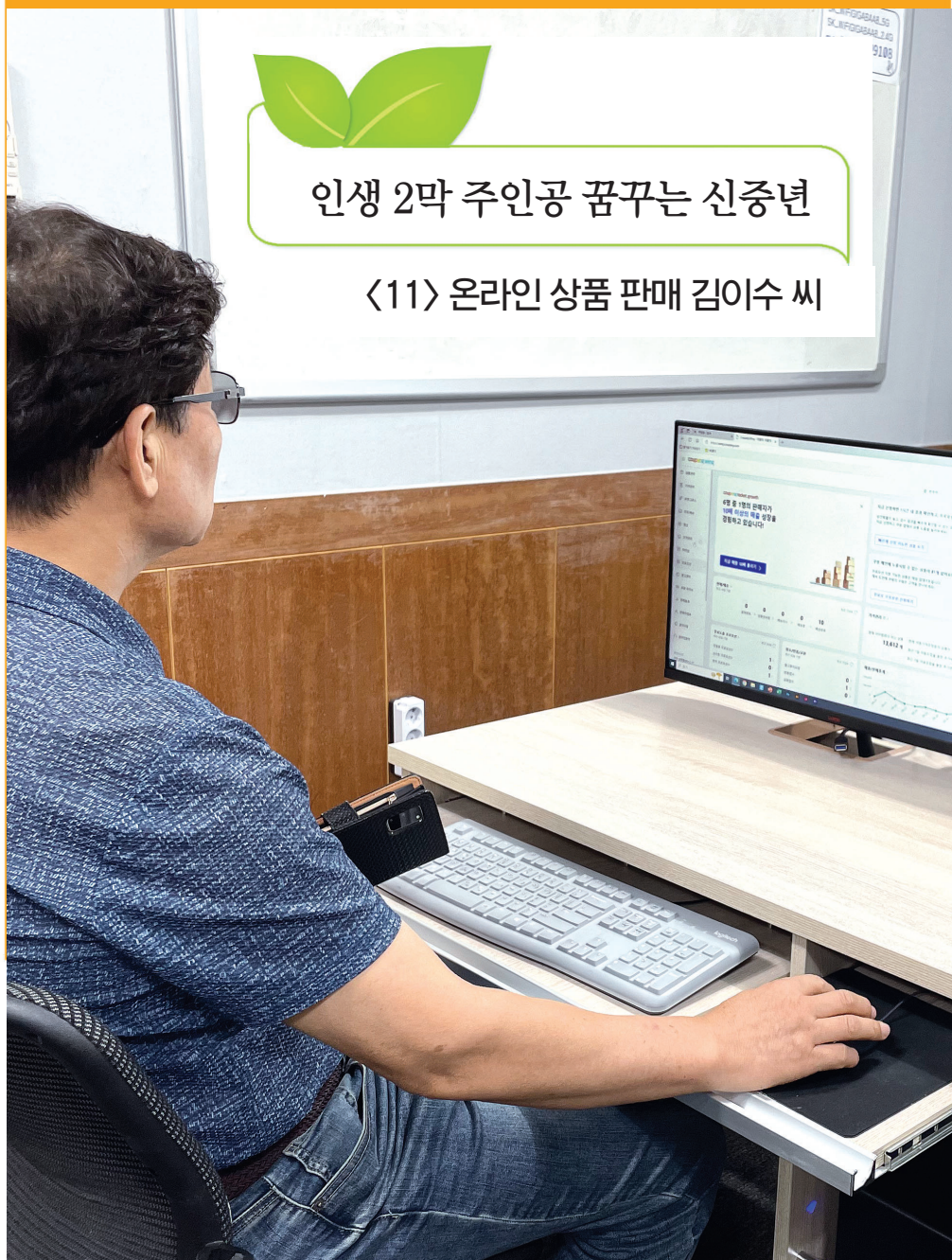


123456789012345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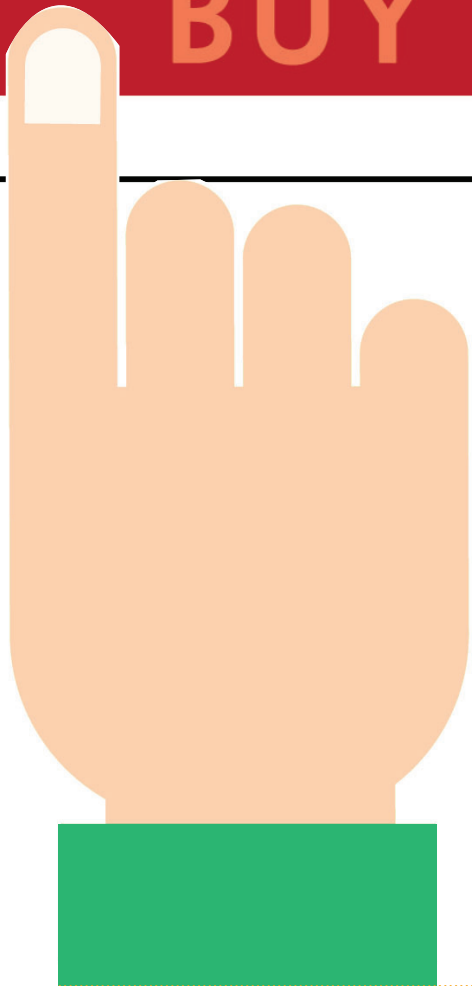
인생 2막 주인공 꿈꾸는 신중년

<11> 온라인 상품 판매 김이수 씨



김이수씨가 자신의 쿠팡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 전날 판매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.

BUY



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글로벌셀러창업지원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.

